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바람의 눈물

2012시즌을 앞두고 전격 은퇴를 선언한 KIA 이종범 선수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등번호 7번은 영구결번이 된다. /연합뉴스

"행복했다… 지도자로 꼭 돌아오겠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천재' 이종범이 5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작별을 고했다.

"제 이름 뒤에 선수라는 것을 더 이상 붙이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말문을 연 이종범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팬, 동료, 구단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노장 투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밝혔다.

이종범은 "선수 생활 막바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우리 주위 아버지들이었다. 나를 보면서 힘이 된다고 손을 잡아 주던 아버지들. 그들에게 희망을 얻었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은퇴 결정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힌 이종범은 은퇴는 갑작스런 충동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종범은 "2008년 시즌 후 처음 은퇴 권유를 받았고, 이후 하루도 은퇴라는 단어를 잊고 산적은 없었다. 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옷을 벗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팀에서 더 이상 내 몫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20년의 프로야구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말한 이종범은 타이거즈가 야구 인생의 큰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타이거즈에 들어오기 위해 야구를 했었다는 이종범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정말 행복했다. 또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은퇴해서 행복하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타이거즈맨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제 2의 인생'에 코치 연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며 선진야구도 경험하고, 2군에서 생활도 하고 우승 현장에 서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한만큼 코치 연수보다는 인생 공부를 한 뒤 그라운드로 복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종범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다듬고,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겠다고 밝힌 이종범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축복을 받고 떠난다. 지도자로, 좋은 사람으로 다시 만나겠다"고 한 뒤 큰 절을 올리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문일답

입단 첫해 우승·도루 84개 가장 기억

▲페이스가 좋았는데 은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현역을 할 생각이었나.

-올 시즌 준비를 잘했고 81kg였던 몸무게를 76kg까지 감량했다. 이런 은퇴 발표를 안했다면 4·5월 정도, 주전으로 그 실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단과 상의해서 은퇴시기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93년 신인때 멋 모르고 프로에 들어와서 시즌을 치르고 한국시리즈 우승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제무대에서는 2006 WBC 일본과의 경기에서 결승 2루타를 치고 손을 들고 있던 게 가장 뇌리에 남아있다. 일본에서 팔꿈치 부상, 한국에서 얼굴 부상을 당했던 것은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아직 이렇다할 계획은 없다. 광주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집사람과 어떤일을 해야지 한국 야구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이다. 1979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야구를 했다. 배운 게 야구 밖에 없기 때문에 야구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 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종범의 지도자상은.

-김응용, 호시노, 김성한, 유남호, 서정환, 조범현, 선동열 감독님을 모셨다. 많은 감독님들이 선수들 지도 하는 것을 봤다. 장점만 살리도록 하겠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은퇴 경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퇴식은 언제든지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은퇴경기도 중요하겠지만 팀이나 상대팀이 지루하고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은퇴식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많은 타이틀 중 가장 특별하게 남은 것은.

-홈런이 아니라 득점을 원하는 타자였다. 팀이 1점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도루 84개를 했던 게 가장 애착이 남는다. 도루를 하면서 실패도 했지만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기도 했다. 정후(아들)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꼭 잘해서 그 기록을 깨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도루 타이틀이 내겐 가장 소중한 것 같다.

▲20년 가까이 롱런을 했는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국 나이로 43살이다. 야구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는 선수와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생각없이 야구를 하는 것은 노동이다. 후배들에게 꿈과 목표를 크게 잡고 그것을 위해 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서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 모레 앞날을 생각하고 하면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종범에게 야구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선수들보다 큰 체구는 아니었다. 평범하지만 체구가 좋고 파워가 좋은 선수를 이기기 위해 노력했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야구를 통해서 사회성을 길렀고 인간관계도 가졌고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다. 야구 선수 이종범하면 체구는 작지만 야구는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해왔다. 야구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은퇴를 한다. 야구가 좋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현장 스케치

가족 이야기에 주르륵 "아들이 내 기록 깨주길"

'프로야구 전설'이 눈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5일 KIA 타이거즈 선수로의 마지막 자리에 선 이종범의 표정은 밝았다. 은퇴 기자회견을 위해 찾은 수 많은 취재진을 보면서 "헐리웃 스타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을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또는 담담하게 은퇴 소감을 밝히던 이종범은 '가족'이라는 이름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던 이종범은 "와이프와 정후, 가연이 정말 정말 소중했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을 쏟았다.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한 이종범은 "아프고 다치고, 슬럼프를 겪었을 때 가족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행복한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사랑스런 집사람과 아들, 딸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 사랑을 받았다"고 자신을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눈물로 사랑을 전했다.

이종범은 은퇴를 선언한 후 야구 선수 이종범에서 아버지 이종범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 했다. 야구 인생을 살아온 광주를 잠시 떠나기로 한 것도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바이올린을 하는 딸 가연(13)양이 지난 3월 서울 예원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게 마음에 걸려왔던 이종범이다. 야구를 하고 있는 정후(14·무등중)군도 기꺼이 아빠의 뜻을 따르기로 하면서 서울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다.

은퇴 소식을 듣고 "잘하셨다"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준 정후는 든든한 아들이자 이종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기록인 84도루를 깨줬으면 하는 야구 후배이기도 하다.

그라운드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했고, 꿋꿋했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2의 삶을 써내려 간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다렸다 프로야구 내일개막

2012시즌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V11'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가 7일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2012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선동열 감독 체제로 탈바꿈한 KIA는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자체 홍백전을 갖고 시즌 리허설을 끝냈다. 개막 엔트리도 5일 발표됐다.

홍백전을 통해 최종 점검을 끝낸 선동열 감독은 "부상으로 주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만큼 힘든 4월이 될 것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5월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팀 구성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다. 10승, 5할을 목표로 4월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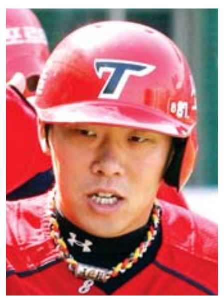
KIA는 마운드에서 필승조 손영민과 좌완 양현종이 부상으로 재활 중이다. 타선의 핵 이범호도 햄스트링으로 개막전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투·타에 공백이 생겼다. 다행히 손영민이 2군 피칭을 앞두고 있고, 양현종도 빠른 회복세로 5월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

마무리 고민도 한기주의 복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

선 감독은 "유동훈·심동섭·한기주가 좋다. 한기주의 상태가 80% 정도다. 한기주를 기본적으로 마무리로 가고 유동훈과 심동섭을 셋업으로 해서 불펜을 꾸려나갈 생각이다. 여기에 필승조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상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기주

신종길


안치홍

이범호의 부재로 중심타선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 감독은 '공격형 2번타자'에 신종길을 배치하고 안치홍을 3번 자리에 투입해 타선을 구성할 예정이다.

1루도 KIA의 '핫코너'다. 지난 시즌 1루를 책임졌던 최희섭이 2군에서 몸을 만들고 있고, 김주형도 팔꿈치 수술로 재활중이다. 1루수 수업을 받아왔던 김상현은 수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외야로 다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시범경기 막바지 선 감독은 김원섭·나지완·신종길에게 1루를 맡겨 테스트를 했다. 내야수 출신인 신종길이 가장 핸들링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종길이 당분간 1루를 책임질 예정이다.

2005년 이후 개막전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는 서재응을 개막전 선발로 내세워 연패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선 감독은 SK와의 개막 2연전을 위해 선발 앤서니까지 불펜에 대기시켜 초반 분위기 싸움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5일 발표된 KIA 개막 엔트리는 투수 10명, 야수 16명으로 구성됐다. 10일 삼성과의 홈개막전 선발인 윤석민과 11일 등판예정인 박경태는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안방마님' 김상훈도 수술 받은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아 엔트리에서 빠졌다. 신인 중에서는 내야수 윤완주가 이름을 올렸다.

◇KIA 개막전 엔트리

▲투수 = 진해수, 김희걸, 서재응, 고우석, 임준혁, 심동섭, 유동훈, 앤서니, 한기주, 라미레즈 ▲포수 = 차일목, 송산 ▲내야수 = 김선빈, 홍재호, 박기남, 안치홍, 이현곤, 최훈락. 윤완주 ▲외야수 = 신종길, 이용규, 김상현, 나지완, 김원섭, 류재원, 이준호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섬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11일,25일	₩385,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 · 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해외여행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훼리(매주목)	₩650,000원~
4일	청 도 위동훼리(매주토)	₩33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훼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훼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황산 MU	₩670,000원~